

「건강 2호」차 7월 말경 탄생

「3호」차 7월 초순, 「5호」차도 8월 말경



← 사진 : 작
년에 나온
건강 1호
검진차

비전염성 만성질환의 집단검진 사업을 위한 이동검진차량인 「건강 2호」「건강 3호」「건강 5호」가 드디어 금년 여름내로 정식 탄생한다.

즉 「건강 2호」버스는 본부가 국고보조 2,400만원을 들여 동아자동차에 주문, 7월 말경 출고예정으로 있어 「건강 1호」와 더불어 검진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그런데 「건강 2호」는 주로 서울권을 카バー하게 되며 그간 서울권을 카バー한 「건강 1호」버스는 부산 경남권을 카バー하게 되었다.

또한 「건강 3호」버스는 경북도에서 기증한 현대자동차 제조버스로 경북일원을 주된 검사권으로 하고 있는데 7월 초순경 가동 예정으로 있다.

또한 「건강 5호」버스는 전라남도에서 특별히 배정한 도비보조 2,000만원으로 아세아 자동차에서 제조되는데 8월 말일 경 출고예정으로 있어 앞으로 서울권, 경북권, 부산권, 전남권의 건강검진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되어 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전라남도 도비배정에 있어서는 전남도지사와 보사당국, 그리고 기협직원들의 특별한 배려와 노고로 이루어진 것이다.

경상북도 검진차량인 「건강 3호」도 경북도 당국의 특별배려로 도청 통근버스로 사용하던 차량을 건강관리협회 경북지부에 배정한 것으로 경북도민의 건강증진사업에 가일중의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이다.

엄앵란의

“알뜰 살림”

KBS, TV 駆虫요령 錄画

◎ 지난 5월31일 KBS·제2TV에서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엄앵란의 알뜰살림”시간에 방영키 위해 촬영팀이 협약에 내방, 여름철 기생

충구제에 특히 유의해야 할 점 등을 자세히 녹화했다.

영화배우 엄앵란씨와 문답 형식으로 다루어지는 이시간은 가정주부들이 특히 유의해야 할, 기생충에 관한 상식 등을 내용으로 엮어졌다.

이 필름은 6월23일(목) 오후 6시50분부터 7시까지 KBS·제2TV로 전국에 방영될 예정이다.

건강검진사업 활발히 전개

10만 2천여명 검사 5월30일 현재

올해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건협의 건강검진사업이 활발히 전개되어 지난 5월30일 현재 총인원 10만 2천 2백67명을 검사하여 국민보건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즉 健協이 집계한 5월30일 현재의 통계에 의하면 고혈압검사 5,081명, 심장질환검사 5,831명, 당뇨병검사 62,822명, 신장질환검사 5,410명, 간장질환검사 5,731명, 빈혈검사 6,189명, 혈액형검사 3,531명, 자궁암검사 2,911명, 기타 4,761명으로 되어있어 총 10만 2천여명을 검사한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중 이상소견자는 발견되는 즉시 진료기관인 병의원에서 치료토록 알선하여 조기치료를 하도록 권장했다.

제14차 热帶醫學 세미나

지난 6월 9일 개최

제14차 열대의학세미나가 6월 9일 개

막되어 11일까지 연세의대 장기원 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연세대학교 열대의학연구소가 주최하고 보사부, 의협, 해외건설협회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최근 주요열대성질환의 관리」이며 14개국에서 1백 명의 학자가 참석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열대성질환의 관리에 있어서 중간숙주의 관리를 종전에 사용되던 화학적방법보다는 생물학적 관리에 중점을 두어 토론되었다.

9일 오전 9시30분에 개최된 개회식에서는 蘇鎮掉조직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安世熙연세대총장의 환영사, 金正禮보사부장관의 축사와 文太俊 의협회장, Na, Ka jima Hiroshi 씨 (WHO 서태지역 사무총장)의 축사등이 있었다.